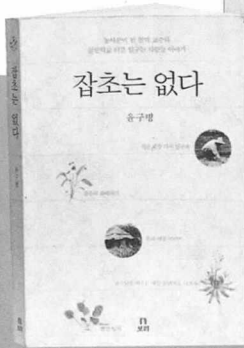


한 철학자가 보여준 실천하는 삶의 기쁨

가수 백창우씨가 뽑은 윤구병의 《잡초는 없다》



"아무데나 펼쳐도 큰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제 삶에 많은 파장을 일으킨 책이죠. 실천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이며, 그것이 왜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곡가면서 가수인 백창우씨(42)는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마천루 사이에서 숲과 냇물과 구름을 찬미하고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 음유시인이 자연으로 가고 싶을 때마다 펼쳐보는 책이 한권 있다. 바로 윤구병의 《잡초는 없다》(보리)다.

"도시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어느새 도시에 길들여져 있더군요.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낄 때마다 이 책을 들춰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연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다. 예를 들면 콩은 언제 심어야 할까 하는 물음에 대해 4월이 아닌 감꽃이 필 무렵이라고 대답한다. 도시인들은 전혀 생각해낼 수 없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데나 펼쳐도 큰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제 삶에 많은 파장을 일으킨 책이죠. 실천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이며, 그것이 왜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묻어 있는 책에는 페이지마다 줄이 반듯하게 그어져 있다. 행간과 여백에 적어놓은 메모도 눈에 띈다. '버리다 버리다' '쓰레기 블루스' 같은 메모들은 곧 문명을 비판한 노래로 거듭나 세상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의 문명은 모든 것을 버립니다. 옷을 버리고 자동차를 버리고 책을 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람까지 버리죠. 하지만 자연은 버려진 것들을 다시 감싸안아 기릅니다. 세상에 나온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이 없으며, 심지어 잡초 한 포기마저 제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권의 시집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이기도 한 그는 일년 전부터 시노래 모임 '나팔꽃'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정호승, 안도현, 도중환, 김용택 등 내로라하는 시인들과 김원중, 김현승 등 노래꾼들이 참여한 이 모임은 시와 노래의 만남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대중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상승과 칸초체를 보면, 시를 노래로 만든 작품이 많습니다. 시인이 가사를 직접 쓰기도 하죠. 시는 대중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노래는 삶의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 최갑수 기자

열린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팝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775 서울 종로구경운동88 수유희관1411호
전화:739-0180(대) 팩스:739-0160

SAMDUK

삼덕미디어
삼덕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775 서울 종로구경운동88 수유희관1411호
전화:739-0180(대) 팩스:739-0160
인쇄·제본공장:465-4707(대)